

## 영화 “타워”와 “반창꼬”에서 비쳐진 소방활동과 실제와의 차이

김혜선, 김호중, 정석환

본 연구는 2012년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반창꼬”와 “타워”에 보여준 소방 활동과 실제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소방관련 법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당 영화의 소방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영화 속에서 소방활동 장면을 선별하였으며, 총 30 장면을 중심으로 5점 단위로 점수를 매겨 최종 13 장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구, 보호, 업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과 응급상황, 소방 활동이 실제 영화 속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난현장과 연관성이 있는 응급의학, 소방, 재난복지 분야에서 영화에서 나타난 오류를 이해하고 바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주제어:** 영화, 소방활동, 반창꼬, 타워

### 1. 서론

2012년 말 흥행작인 “타워”와 “반창꼬”는 대중들에게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 소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는데 공헌한 영화이다. 지금까지 ‘응급상황’을 주제로 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은 드라마나 영화는 많았지만 이 영화들처럼 소방활동을 주 무대로 하여 비슷한 시기에 흥행했던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두 영화는 소방의 역할을 홍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매개체로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담당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 대중매체에서 다양한 소방활동의 실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거의 많은 대중매체가 그랬듯이 두 영화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은 줄거리를 쫓아 만들어진 가상의 장면들에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이 영화들에서 비춰진 몇몇 소방활동들은 실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영화를 현실이란 틀 속에 가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관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믿어버릴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적과 감시장치 및 보고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Radford, 1996; Marcus, *et. al.*, 1998)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볼 때, 영화의 허구성과 실제와의 차이점을 탐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특히 재난과 응급상황에 따른 소방활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고충과는 달리

스틸과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소재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응급상황은 흥미와 사건의 시나리오를 넘어서 시청자나 일반인 특히 청소년과 같이 정보의 흡수가 빠른 이들에게 결과자체 보다 과정의 해설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지식과 판단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중매체는 시청자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중매체가 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적, 인적 투자가 투입되어야 하는 모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 평가와 교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박인철 외, 2002; [http://mybox.happy-campus.com/3school/436524/?agent\\_type=naver](http://mybox.happy-campus.com/3school/436524/?agent_type=naver). 2013).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올바른 인식 제공, 향후 후속 연구나 대중매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누적 관객 수 각각 300만 명과 200만 명을 넘기면서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살려준 대표적인 영화 “타워”와 “반창꼬”를 중심으로 영화상에서 나타난 소방활동과 그 실제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대중에게 소방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고, 응급의학, 소방, 재난복지 등의 학문분야에서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며, 향후 대중매체 적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대상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소방활동을 주 무대로 다루고 있는 영화, “타워”와 “반창꼬”이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의학 전문의 1인과 구조구급 실전 경력이 있는 소방안전학교 교관 1인,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이 극장에서 각자 영화를 관람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메모형식으로 자료를 남긴 후 두 영화를 유료사이트를 통해 다운 받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검토를 통해 실제 소방활동과 거리가 먼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이들 중 영화적 특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첨가되었거나 소방의 역할에 오해의 소지가 적은 것들을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오해의 소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1점-가장 낮음, 5점-가장 높음)로 하였고 2점 이하를 적은 것으로 정하였다. 2차 검토는 1차에서 제외 후 남은 의견들을 검토하는 작업으로 소방관련법과 실제 구급 및 구조현장에서 시행하는 역할들을 인천지역의 현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리된 내용을 현직 1급 구급대원 4인을 통해 재검토하게 하였으며 이들 중 충분한 관련 자료가 있으며 서술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만을 선택하여 최종적인 의견으로 정하였다.

## III. 결과

## 1. 분석 자료

1차 검토에서 “타워”의 19건, “반창꼬”의 11건을 선별하였다. 2차 검토에서 1차에서 선별한 장면들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실시하여 3점 이상으로 나타난 “타워”의 9건, “반창꼬”의 4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 2. 각 영화별 결과

### 1). 영화 “타워”

#### (1) 소방 항공기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각 시도별 배치된 소방항공기(헬기)를 운영하는 담당은 각 시·도 소방항공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1>과 같이 소방항공기(헬기)는 일반 사기업의 행사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소방항공기(헬기)뿐 아니라 소방장비(차량 등)는 법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소방훈련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그림 1> “타워”에서 소방 항공기 지원요청 관련 장면

#### (2) 근무대기 시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은 정해진 근무일과표(2조 1교대, 3조 2교대)에 의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근무 시간에 사행성 도박을 할 수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119안전센터 업무에 행정업무가 없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운동 및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타워”에서 근무대기 시간활용 관련 장면

(3) 현장출동에 관한 사항

앞서 언급한 소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르면 본인의 근무 시간외(비번이라 함)에 현장출동을 하는 경우는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로, <그림 3>과 같이 본인 스스로 출동대에 편성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림 3> “타워”에서 현장출동 관련 장면

(4) 현장활동(열감지 및 장비착용)에 관한 사항

<그림 4>는 구획실 내에 플래쉬오버 현상을 감지하고 대피를 시도하는 장면이다. 이 때 <그림 5>와 같이 주인공 설경구가 손바닥으로 열을 감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실제 안전장갑을 낀 채로 먼저 열을 감지하고 열 감지가 잘 안될 경우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감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의학적으로도 손바닥은 손등보다 혈관이 많아 열이 많기 때문에 열 감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화점층에 도달하여서는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면체)를 착용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해야 하지만 미착용은 매우 위험하다.



<그림 4> 영화 “타워”에서 열감지에 대한 현장활동 관련 장면



<그림 5> 영화 “타워”에서 장비착용 관련 장면

#### (5) 무전기 전달 등 소통에 관한 사항

<그림 6>은 설경구가 김상경에게 딸을 찾았을 때 필요하다며 장비(무전기, 간이 산소호흡기)를 건네는 장면이다. 딸을 찾겠다는 부정(父情)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장면 역시 실제와는 다르다. 일단 건물내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하더라도 개인안전장비 없이 화재현장 안을 건물 관계자가 돌아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건넨다는 것은 소방관의 현장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이는 지휘부 및 각 대원 간의 소통불능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영화 “타워”에서 무전기 전달 등 소통 관련 장면

(6) 관창과 동료와의 현장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림 7>은 신입 소방관역으로 나오는 도지한이 방수 중에 관창(소방호스)을 놓쳐 수압에 의해 멋대로 날뛰는 관창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도 설경구가 몸을 날려 관창을 다시 잡고 잠그고, 쓰러진 도지한의 헬멧을 두드리며 몸을 흔들고 깨우는데 역시 비상식적인 일이다. 높은 수압에 의해 날뛰는 관창을 놓친 경우는 관창을 잡으러 가기보다는 수압을 낮춘 후에 방수구를 잠궈야 한다. 높은 수압에 날뛰는 관창을 직접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림 7> 영화 “타워”에서 관창 관련 장면

또한 <그림 8>처럼 관창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을 일으킨 동료 소방관에 헬멧을 두드리거나 몸을 흔들며 깨우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그림 8> 영화 “타워”에서 화재 진압 시 동료와의 활동 관련 장면

(7) 불길유도에 관한 사항

영화 “타워”에 있어서 <그림 9>은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이고 가장 위험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초고층건물화재에서 불길을 밖으로 유도하는 것은 상층부로 화재를 확산시켜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배연을 위한 개구부 생성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미 헬기가 건물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또한 무의미하다.



<그림 9> 영화 “타워”에서 불길유도와 관련한 장면

(8) 봄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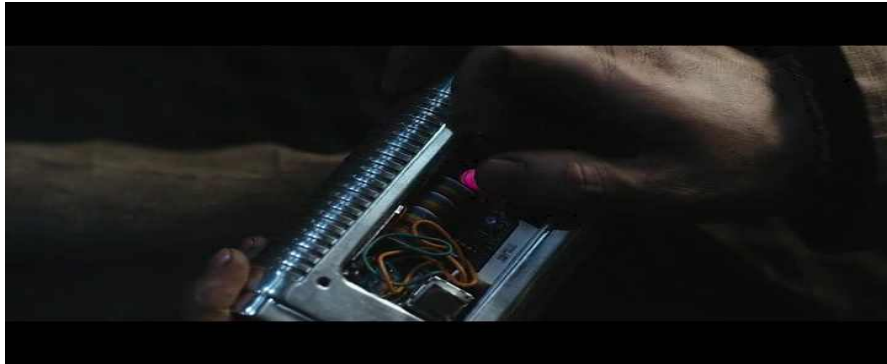
<그림 10>은 동료소방관의 공기호흡기 봄베(수소·산소·프로페인가스·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압축가스를 속에 넣고 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강제의 고압용기)를 불길에 던져 폭탄으로 활용하여 맞불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이다. 일단, 공기호흡기 봄베 자체가 폭탄같이 불길에 던져 바로 폭발할 수가 없으며, 설령 폭발한다 하더라도 그 폭발의 위력은 실제 수류탄 이상의 폭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붕괴 등의 위험이 다분하다. 초고층화재의 위험성은 화재 자체에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건물 붕괴의 위험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맞불은 임야화재나 위험물(대형유류저장 탱크 등) 저장시설 등에 화재진압이 어렵고 가연물이 많은 경우 신중을 기해서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조대장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림 10> 영화 “타워”에서 봄베 관련 장면

(9) 폭탄설치에 관한 사항

<그림 11>은 김인권과 설경구가 폭탄을 터뜨리는 장면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 중에는 폭파전문기술자는 없다. 따라서 소방관이 폭발물을 취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림 11> 영화 “타워”에서 폭탄설치 관련 장면

## 2) 영화 “반창꼬”

### (1) 구급대원의 출동에 관한 사항

<그림 12>는 영화 “반창꼬”에서 구급출동을 나가는 장면이다. 영화상에서 구조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구조대 차량, 고가 사다리차 등 불필요한 차량을 출동시키는 것은 실제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보다는 보호자와 정황 설명만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물론 2013년 4월에 구급차가 부족한 경우 다른 차량을 출동시켜 먼저 환자 구조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침이 시범적으로 경기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림 12> 영화 “반창꼬”에서 구급 대원 출동관련 장면

### (2)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그림 13>은 여자 주인공인 한효주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되는 장면이다. 하지만 문제는 영화 “반창꼬”에서 나오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의 복장은 현재 우리나라 소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장이며, 구급의용소방대원이 따로 존재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발대가 가능하더라도 소방기본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으로서 소방공무원과 상시 근무는 불가하다.



<그림 13> 영화 “반창꼬”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장면

### (3) 현장활동에 관한 사항

<그림 14>와 같이 영화 “반창꼬”에서 나오는 모든 현장활동 장면은 비현실적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 활동에서 개인안전장비를 완전하게 착용하고 활동하는 장면이 거의 없으며, 남자 주인공인 고수는 개인적인 활동이 많다. 소방현장 활동에서는 대원 상호 안전을 위해 항상 팀, 조로 편성되어 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은 항상 위험을 초래하게 한다. 또한 상사의 명령 무시 등 현실과 맞지 않다.



<그림 14> 영화 “반창꼬”에서 현장활동 관련 장면

### (4) 붕괴사고 구출에 관한 사항

<그림 15>는 철도 위 교통사고와 붕괴사고에 요구조자가 붕괴물에 깔린 사고 현장의 장면이다. 교

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현장이 위험할 경우 우선적으로 위험현장으로 부터 요구조자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시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위험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 중 위험이 닥치자 요구조자를 포기하자는 발언을 하고 있다. 기본원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면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5〉 영화 “반창꼬”에서 붕괴사고 구출 관련 장면

붕괴사고에서는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고 2차, 3차 피해를 가정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2차 붕괴의 위험을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조자가 있다는 말만 듣고 현장으로 대원을 진입시키는 것은 지휘자로서 아주 무능한 판단이다. 현장진입대원의 안전이 확실한 경우에 대원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붕괴 위험시에는 과감히 대원을 철수 시켜야 한다.

####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소방을 배경으로 극적인 연출을 통해 재난상황과 소방 및 의용소방대 활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 “타워”와 “반창꼬”를 중심으로 소방활동의 실재를 분석하여 대중에게 소방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고, 응급의학, 소방, 재난복지 등의 학문분야에서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며, 향후 대중매체 적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타워”의 9건, “반창꼬”의 4건이 소방활동의 실제와 상이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워”는 ‘소방 항공기 지원 요청’, ‘근무대기 시간 활용’, ‘현장 출동’, ‘현장활동(열감지 및 장비 착용)’, ‘무전기 전달 등 소통’, ‘관찰과 동료와의 현장활동’, ‘불길유도’, ‘봄베’, ‘폭탄설치’ 등의 사항이 현실과 달랐다. 또한 “반창꼬”는 ‘구급대원 출동’,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붕괴사고 구출’에서 소방활동의 실제와 다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매체 속 소방활동이 대중에게 주는 이미지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활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두 편의 영화에서 모두 현장활동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웅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현장처치를 기대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현장처치는 어느 누구가의 영웅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소방을 통해 구조구급활동을 시행한 횟수는 146만여 건이었다. 이 중에서 화재와 구조 등에 투입된 경우는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방대원의 충원은 2008년에 비해 16% 가량 증가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http://www.nema.go.kr>, 2013). 소방방재청 등의 노력으로 최근 소방대원의 확충이 예상되고 있지만 현장 투입에 가능한 인력은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소방장비 및 소방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영화 “타워”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방장비인 소방 항공기가 권력에 의해 쉽게 이용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조리한 태도임을 배울 수 있었겠지만 어디까지나 스토리상의 전개일 뿐 정책적 시각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소방 항공기(헬기)는 2009년에는 26대로 359명을 이송하였으며 2011년 도입된 ‘닥터헬기’는 인천과 전남 두 지역에서 최근 1년 동안 333회, 335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http://www.mw.go.kr>, 2013). 또한 두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화재 진압과 붕괴 사고현장은 무리한 구조활동에 대한 일반 관객이나 소방 관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재난과 응급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역할은 국내의 응급의료체계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의료적 역할 담당자이자 현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재난과 응급상황이 많아지는 시기에 이들의 현장에서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속 장면처럼 소방활동에 임하는 담당자들의 무리한 구조활동이 자칫 이상화되거나 일반화되어 정상적인 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영화 “반창꼬”에서 비춰진 의용소방대의 모습은 상근 근무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이 수행하는 기술 이상을 실행하고 있어서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용소방대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1954년에 재구성된 조직으로, 조직원들은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주로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응급시 출동하여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정기성, 2009; 박경환·유지오, 2012). 물론 영화가 의용소방대의 존재가치를 일반인에게 부각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의 활동은 국가기관과 차별성을 가지며 재난과 재해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일반인의 활동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도 대중매체 속 소방활동에 대한 그릇된 장면과 내용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허구는 사실일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중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대부분 현실의 한 부분으로 여과없이 기억 속에 저장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의학이나 사극 관련 드라마 등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고찰을 명시하거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권면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소방 분야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점차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경환, 유지오. 2012.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도로터널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의 피난 안전 효과 연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14(1): 1-22.
- 박인철, 좌민홍, 김승호. 2002. 한국영화에 표현된 응급처치의 적절성 평가. 대한응급의학회지. 13(4): 466-470.
- 정기성. 2009.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고찰. 한국화재소방학회지. 10: 138-142.
- Marcus, B. H., N. Owen, L. H. Forsyth, N. A. Cavill, & F. Fridinger. 1998.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Using Mass Media, Print Media, Information Technology. *Am J. Prev. Med.* 15: 362-78.
- Radford, T. 1996. Influence and Power of the Media. *Lancet.* 347: 1553-1555.
- [http://mybox.happy-campus.com/3school/436524/?agent\\_type=naver](http://mybox.happy-campus.com/3school/436524/?agent_type=naver). 2013. 10.
- <http://www.nema.go.kr>. 2013. 10.
- <http://www.mw.go.kr>. 2013. 10.

---

**金惠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중독(공동의존), 가족치료, 임상사회복지이며, 역서로는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2013),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의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 음주 영향 그리고 공동의존(2013) 등이 있다 (welcom-kim@kangwon.ac.kr).

**金鎬中:**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심폐소생의학, 심혈관계응급의학, 노인의학, 스포츠의학이며, 주요 저서로는 “Practical Emergency Procedure”, “OSCE” 등 5편저와 주요 논문으로는 “부천 내 학교의 질환 분석을 통한 최초의 한국형 학교 구급함에 대한 연구” 등 국내외 50여편의 논문 등이 있다(lovelydr@schmc.ac.kr).

**鄭石煥:** 재능대학교 컴퓨터정보과를 졸업하고 현재 소방장으로서 인천소방학교 교관으로 재직중이다. 화재진화사 1급이며, 인명구조사 2급이다(redish@korea.kr).

투 고 일: 2013년 06월 14일

수 정 일: 2013년 08월 17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21일

## The Difference of Fire Department Activation between Real and Movie(Tower & Banchangkko)

Hye Sun Kim, Ho Jung Kim, Seok Hwan Jeong

To suggest the proper role of fire department to people with the difference of fire department activation between real and recent movie(Tower & Banchangkko, South Korea. 2012) Methods: We selected recent 2 korean movies set in fire department, which more than 1,000,000 peoples had seen. We enrolled the each scenes compared with the property of real activation using by 5 likert scale, related law and references. Initially, we selected total 30(19 Tower & 11 Banchagkko) scenes and excluded 17 scenes with 5 scale. Finally, 13(9 Tower & 4 Banchagkko) scenes were enrolled and compared with real fire actions. Instrument, protection, duty and field action were main differences and main subject material such as volunteer fire department also was used differently. We found that, In disaster and emergency care, fire department would perform the different role with famous movie. Therefore, emergency physicians and the fire community should correct the fault scenes and stories in movie.

**Key words:** movie, fire, Tower, Banchangkko